

04 2027학년도 학과·계열

의약학 계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의·치·한·약·수의·간호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무엇이 다른가	2
03	어느 전형으로 뽑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경쟁률 19.3:1** — 수시에서 가장 높은 자리 · 67%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 ◆ 여섯 갈래의 **수업 연한과 자격**을 나란히 — 간호가 다른 자리에 있는 까닭
- ◆ **수시에서는 학종이 가장 큼니다(98줄)** — 고1부터의 생활기록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 ◆ 지정과목·지역인재까지 확인하는 점검표 여덟

01 · 숫자부터

경쟁률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의대·약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먼저 하나를 갈라 두겠습니다. **의약학 계열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의예·치의예·한의예·약학·수의예가 **수업 연한도 자격도 진로도 다릅니다.** 그리고 간호는 또 다른 자리입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세어 보았습니다.

갈래	줄	모집	대학	경쟁률	최저
의·치·한·약 ·수의	217	2,560명	26	19.3:1	67%
간호	66	1,050명	19	12.8:1	62%

경쟁률 19.3:1입니다. 전체 교과(9:1)·학종(12.4:1)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67%가 수능최저를 겁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지원자는 많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에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표면 경쟁률과 실질이 크게 벌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 최저를 확실히 넘기는 학생에게는 보이는 것보다 열려 있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개별 대학·학과의 합격선은 심지 않습니다. 경쟁률은 전년도 값의 중앙값입니다.

02 · 무엇이 다른가

수업 연한과 자격이 다릅니다

여섯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다릅니다.

갈래	수업 연한	무엇이 되나	결이 다른 자리
의예	예과 2 + 본과 4	의사	졸업 뒤 수련이 길게 이어집니다
치의예	예과 2 + 본과 4	치과의사	개원 비중이 높습니다
한의예	예과 2 + 본과 4	한 의사	교육과정이 크게 다릅니다
약학	6년 (통합)	약사	제약·연구로 가는 길이 넓습니다
수의예	예과 2 + 본과 4	수의사	동물병원 외에 검역·연구도
간호	4년	간호사	모집 규모가 큼니다

간호가 다른 자리에 있는 까닭이 보이실 것입니다. 4년이고, 모집이 1,050명으로 넓고, 경쟁률도 12.8:1로 낮습니다. 「의약학 계열」로 묶어 부르지만 지원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공통점은 둘입니다

하나 — 국가시험을 봅니다. 졸업만으로는 자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 4~6년 뒤에 시험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둘 — 정원이 법으로 관리됩니다. 대학이 마음대로 못 늘립니다. 그래서 **정원 변동이 뉴스가 되고**, 그해 지원 판도가 크게 흔들립니다. **지원 연도의 모집 인원을 반드시 요강에서 확인하십시오.**

수업 연한과 자격 제도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대학·학과에 따라 학제가 다를 수 있으니 요강과 학과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03 · 어느 전형으로 뽑나

학종이 가장 큼니다

의약학 계열이 어느 전형으로 뽑는지도 봐 두실 만합니다.

전형	줄	무엇을 뜻하나
학생부종합	98	가장 큼니다 — 서류를 읽습니다
학생부교과	80	내신을 계산합니다
논술	38	수리·과학 논술이 대부분입니다

학종이 가장 큼니다. 이건 준비 방향을 바꾸는 사실입니다 — **내신만으로 되는 자리가 아니라 서류가 함께 읽히는 자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1부터 정해집니다

학종은 **3년치 생활기록부**를 읽습니다. 앞서 다룬 대로 **세특이 그 중심**이고, 그건 고3에 만들 수 없습니다.

의약학을 생각하신다면 **고1부터 과목 선택과 세특이 이어지게** 두셔야 합니다. 다만 「**의대용 생기부**」를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과학을 깊게 파고든 흔적이면 됩니다.

논술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38줄이 논술입니다. 앞서 본 대로 **논술은 내신 비중이 작습니다**. 내신이 아쉬운데 수리·과학이 강한 학생에게는 이쪽이 실질적인 문입니다.

다만 **최저가 높은 편**이고 경쟁률도 큼니다. **기출을 한 번 써 보고 정하십시오** — 성적으로는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전형명 기준). 대학마다 전형 구성이 다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는 차례와 점검표

차례	무엇을	언제
1	여섯 갈래 가운데 무엇인지 정합니다	고1~고2
2	과목 선택을 맞춥니다 — 지정과목 확인	고1 겨울
3	수능최저를 세어 봅니다	고2~고3
4	지역인재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3 여름 전
5	그해 모집 인원을 확인합니다	요강 나온 뒤

4번을 놓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의약학 계열은 **지역인재 선발이 법으로 일정 비율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되시면 **경쟁 범위가 좁아지므로 크게 유리합니다**.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의약학을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여섯 갈래 가운데 **무엇을** 볼 것인지 정했는가
- ☐ 그 갈래의 **수업 연한과 자격 과정** 을 아는가
- ☐ 수학 **지정과목** 이 있는지 요강에서 확인했는가
- ☐ 탐구를 과탐으로 못 박은 자리인지 보았는가
- ☐ 수능**최저** 를 계산해 보았는가
- ☐ **지역인재** 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 그해 **모집 인원** 이 작년과 다른지 보았는가
- ☐ 학종이라면 **고1부터의 생활기록부** 가 이어지는가

셋째·넷째를 특히 보십시오. **의약학은 지정과목이 걸린 자리가 많습니다**. 고1 겨울에 과목을 잘못 고르면 **고3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대 준비반」에 일찍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의약학은 **내신·수능·서류가 다 높아야 하는 자리**이고, 그건 특별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오래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학생이 많습니다**. 좁게 짠 준비는 그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넓게 잘하는 쪽이 의약학에도 유리하고, 아닐 때도 남습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의약학 계열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정원이 늘면 들어가기 쉬워지나요?

그 해에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첫째, 정원이 늘면 지원자도 늘니다. 「올해 늘었다」는 뉴스를 모두가 봅니다. 늘어난 정원만큼 문이 넓어지지 않는 해가 있습니다.

둘째, 늘어난 자리가 어디에 붙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지역인재로 붙는 경우가 있고, 특정 전형에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늘었다」가 「내가 쓰는 전형이 늘었다」는 아닙니다.

그러니 뉴스가 아니라 **요강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십시오. 작년 요강과 나란히 놓으면 **어디가 늘었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Q. 재수·삼수가 많다던데 현역은 불리한가요?

수시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시의 상당수가 **학생부종합**입니다 — 앞서 보신 대로 의약학도 학종이 가장 큼니다. 학종은 **3년치 생활기록부**를 읽는데, **졸업생은 그것이 이미 닫혀 있습니다**. 현역이 불리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졸업생이 유리한 쪽은 **수능**입니다. 그래서 **정시와 최저가 높은 전형**에서 졸업생 비중이 큼니다.

그러니 현역이라면 **학종과 서류가 읽히는 자리에 무게를 두시는 편이 맞습니다**. 「**어차피 재수해야 한다**」로 **고3을 흘려보내면 그 자리마저 잃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의약학은 여섯이 **다른 길**입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학종이 가장 큼니다** — 고1부터의 생활기록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집계한 것입니다. 개별 대학·학과의 합격선과 경쟁률은 실지 않습니다. 정원과 전형은 해마다 크게 바뀌니 지원 연도의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